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라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Columbus
파견대학	The Ohio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4년 8월~2015년 5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OSU는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콜럼버스에 메인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5만명 정도 되며 미국에서도 캠퍼스가 엄청 큰 학교로 유명합니다. 종합대학이라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전공도 많이 개설되어있고, 특히 스포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학교 내에 stadium도 있어서 Ohio주 전체가 엄청나게 풋볼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4-2학기 수업	<p>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이 수업은 lecture와 lab이 합쳐진 수업으로 5학점을 받는 수업이었습니다. Lab은 그룹이 아닌 개인별로 실험을 해서 직접 모든 실험과정을 잘 알아야 하고 계산과정도 다 알아야 하므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도 있고, 실험에 쓰이는 이론을 수업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또 매주 인터넷으로 문제를 푸는 과제를 내주시고 recitation이라고 해서 조교가 일주일에 한번 보충수업처럼 진행하는 수업이 포함되어있고 거의 매 수업시간에 Pop-up quiz를 봤지만 예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문제를 내주셔서 크게 어려움 없이 퀴즈를 볼 수 있습니다.</p> <p>World of Energy- 첫 학기에는 어려운 전공을 여러 개 들으면 힘들 것 같아 non major학생들이 듣는 물리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수업내용은 어렵지 않고 교수님께서 이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 후, 중고등 학생 시절에 했던 것처럼 그룹별로 간단히 실험을 해서 worksheet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시험도 객관식이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p> <p>Jazz 1- 일반선택으로 재즈댄스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본적인 재즈동작과 스트레칭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중에는 강사가 짜오는 안무를 배우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수업과제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과 극장에서 댄스공연을 보고 동작을 분석해서 레포트를 내는 것이</p>

	<p>있고, 따로 시험은 없으며 기말과제로는 팀을 정해주면 직접 음악을 정하고 안무를 짜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p> <p>Wine and Beer-이 과목은 온라인 코스였는데 퀴즈도 보고 중간 기말고사도 봤습니다. OCU나 학내가상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또 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러 와인이나 술의 종류와 유래 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p>
2015-1학기 수업	<p>Process fundamentals- 이 과목은 교수님과 조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일주일에 네 번 수업이 있고, 학기 중에 5번의 시험이 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재미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또 매주 과제가 있긴 한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office hour에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항상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처음엔 이해가 안돼서 여러 번 물었던 것도 이해가 될 때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 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강의입니다. 교수님이 유머도 있으셔서 어려운 내용도 재미있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셔서 학기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p> <p>Introduction to Engineering materials- 이 과목 역시 교수님과 조교들이 열정적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 전공 강의와는 달리 계산보다는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이론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잘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수업내용을 녹음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혼자 다시 듣고 빠진 필기를 하거나 복습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recitation에서 중요한 내용을 그룹 내에서 토의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역시 매주 온라인으로 푸는 과제가 있으며 총 네 번의 시험을 칩니다.</p> <p>Rural sociology-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조금 지루한 느낌을 받기도 했던 수업입니다. 시험은 총 3번을 치고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업은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p> <p>Circuit training - 운동 수업으로, 헬스 기구의 사용법과 다양한 운동방법을 배우며 매주 다른 프로그램을 강사님이 짜오시면 거기에 맞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동양인 학생은 저 밖에 없었는데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운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중간중간 힘을 북돋아주는 분위기라서 즐겁게 운동했고, 운동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nternational office가 있고 담당 코디네이터는 Caroline 선생님이십니다. 처음 가면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학기 시작과 끝에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따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정말 많으므로 참여하면 다른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Involvement fair가 있어서 수백 개가 넘는 동아리들을 볼 수 있으며 관심이 있으면 sign up을 하면 메일을 보내주고 동아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 buckeye frenzy라는 행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상품도 타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한 학기에 한번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추천을 해서 외국학생 20명 미국인 학생 20명을 뽑아 무료로 3박 4일 동안 다른 주로 여행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첫 학기에 당첨이 되어 Pittsburgh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도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많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한국처럼 4계절이 있지만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와서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면 젖기 쉬우므로 방수 부츠를 신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우리 학교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은 산책하기 좋은 날씨고 학교 잔디밭에서 책을 읽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은 자외선이 엄청 강하므로 선크림을 꼭꼭 바르고 다녀야 하며, 덥긴 하지만 여름 또한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나무에 해먹을 걸어놓고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크게 유의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p>
안전	<p>캠퍼스 타운이라 많이 위험하진 않지만 모든 곳에서 그렇듯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밤늦게 돌아 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Safety guards로 연락을 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와서 기숙사까지 태워다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캠퍼스 곳곳에 가로등이 항상 켜져 있고, 위급상황에 누를 수 있는 비상 인터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에서 조심하듯이 낯선 곳에 혼자 다니거나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걸어 다니지 않는 이상 특별히 위험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앞에 High street 이라는 곳이 있는데 밤에 술 취한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homeless들이 많은 편이라 그 거리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Morrison tower라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4층은 international 층이라서 다른 외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함께 살고 다양한 행사도 많이 있어서 이 기숙사에 살게 된다면 처음 기숙사를 신청할 때 I-House(International house)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3층에 살게 되었는데 i-house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행에 함께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 뒤로 저에게도 i-house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해 주어서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2인 1실로 생활을 하며 책상, 옷장, 침대,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각 방마다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1층 로비에는 탁구대와 포켓볼 등 여러 게임시설과 공용 주방이 있습니다. Front desk에서 DVD도 빌려 볼 수 있고, 각종 조리 도구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기숙사 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block이라는 meal plan을 사용하였는데, 한 학기 동안 350 block을 사서 학교 내의 모든 학생식당과 카페에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block이 5불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계산을 할 때 주로 5불, 10불 단위로 맞춰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조금씩 초과되는 돈은 cash로 함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lock 은 다 사용하지 못하면 학기가 끝난 후 자동소멸이 되고 5불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서 2015-2016년도 학기에는 여전히 block을 사용하지만 block의 양과 방법 등이 바뀐다고 들어서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저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걸어 다녔으며, 캠퍼스가 커서 처음 수업을 갈 때 강의실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지이고 잔디와 나무들이 많아서 산책을 하기에 좋습니다. 학교 내를 다니는 셔틀도 있어서 그것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또 fee에 13.5불 정도로 포함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내면 학생증이 나오고 나서 COTA라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mega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490,000원	왕복 open ticket
Fees	\$37.50 \$123.00 \$74.40	Student activity fee graduate Recreational Fee Student union facility fee
보험료	\$1,130.00	Int'l Health insurance student (학교 보험을 사야 합니다.)
숙소	\$3,938.00 \$20.00	South campus housing rate South housing activity fee (2학기 때 보증금 300불 환불해줌)
식비	\$1,895.00	Block 350 Plan
교통비	\$13.50	COTA Bus service Fee
책값	\$200 정도	전공서적 rent는 \$50 정도
기타1		
기타2		
합계	\$7,736.40	여행비용 제외

5. 출국 전 준비사항

OSU는 여러 학교 중 거의 제일 먼저 입학 허가서가 도착하므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비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여 그대로 따라 하면 수월합니다. 짐은 최대한 필요 한 것 위주로 가볍게 싸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학기 동안 생활하기는 하지만 학교 주변에 Kroger나 Walmart에 가면 필요한 생필품을 다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충전기 등은 챙겨가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 110볼트용 변압기를 두 세 개 정도 챙겨가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구입하거나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도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싸게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꼭 챙기라고 할 만한 물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여권은 실수로 화물로 보내는 짐에 넣지 말고 carry-on으로 꼭 들고 타는 것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몰라서 저는 비자 인터뷰 때 들고 갔던 서류도 챙겨 갔지만 크게 필요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한다면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간단히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아직도 미국에서 두 학기 동안 배우고 생활 했던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가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길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지도를 보고 다니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위에 수업 소개에서 Recitation이라고 해서 조교가 수업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분석화학 수업의 첫 recitation시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백인 여자 조교의 말을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첫 날부터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모르는 단어는 발음이 들리는 대로 적어놓고 수업 후 조교와 약속을 잡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묻고 단어의 스펠링 등을 알려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수업시간에는 서로 눈치를 보거나 내가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 질문을 잘 하지 않곤 하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는 것과 질문하는 것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office hour마다 찾아가서 묻고 또 물으니 나중에는 정말 질문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수업 내용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교수님과 조교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게 되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일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납니다. 특히 추첨을 해서 간 여행은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친구들과 가는 것이어서 떨렸었는데 오히려 혼자 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여행을 다녀 온 후에도 우리끼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거나 파티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 풋볼이 엄청 유명한데 제가 갔던 학기에 OSU가 National champion이 되어서 학교가 축제분위기에 흠뻑 취해있었던 것도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챔피언을 기념해 학교 로고를 찍어 판매했던 기억도 나고, 홈경기가 있는 토요일이면 엄청난 인파가 buckeye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고 스타디움으로 가는 장관을 보며 신기해 했던 일과 직접 경기를 보러 갔던 모든 일들이 너무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책으로만 영어를 공부하다가 직접 부딪혀보고 또 여행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움직이고 기회를 만들고, 시도 하는 만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학생활이 한 학기밖에 안 남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교환학생 온 친구들에게 제가 받았던 것을 나누고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교 메인 도서관인 Thompson Library</p>	<p>우리학교로 교환학생 왔던 Mary&Diana와 텍사스에서</p>
	
<p>피츠버그 트립에서 친구들과 몸으로 O-H-I-O 만들기</p>	<p>뉴욕 Empire state building에서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p>



학교 스타디움에서 풋볼경기 관람



미국 UN본부 견학